



9월 25~28일 전주서 첫 드론축구월드컵

‘드론축구, 하늘 열고 세계를 잇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서

32개국 2700여 선수단 참여

2016년 세계 최초 개발 후

10년간의 성장 결실 맺어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에서 전 세계 드론축구인의 꿈의 무대이자 국제 드론축구대회인 제1회 드론축구월드컵이 열린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32개국 2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지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의 주요 일정과 준비 사항을 발표했다.

드론축구 분야로는 사상 최초로 열리는 이번 월드컵은 전주시와 캠프종합기술원이 지난 2016년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드론축구 선수단과 팬들은 드론축구공이 처음 날아올랐던 전주에 모여 글로벌 드론 축제를 벌이게 된다.

국도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공동주



우범기 전주시장이 2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드론축구월드컵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하고, 32개국 드론축구(Class40, Class20) 대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인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월드컵경기장 광장에 마련되는 드론축구 특설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팀들이 조별리그를 진행한 후 상위 16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는 드론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드론축구와 장애물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Gracing) 대회’와 각국 국가대표 선수가 참여해 최고의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는 개인전인 ‘슈퍼파일럿 선별대회’ 등 드론 축구부를 활용한 신규 시범종목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술적 볼거리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전주더메이호텔에서는 국도교통부가 주최하는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도 열린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드론산업 동향, 드론 첨단기술 육성 및 국산화 전략 등을 주제로 한 국내외 연사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국산 기술로 개발된 드론 부품과 전국 지자체 행정서비스에 활용되는 드론 기체도 전시된다.

여기에 이번 월드컵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볼 수 있는 드론 체험존 △전주의 풍류와 멋을 담은 문화예술 공연 △전주의 밤하늘을 수놓는 대규모 야간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마련돼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드론 종합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월드컵 기간 중 ‘2025

BUY전주 GOGO 페스티벌’을 연계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전주시 우수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도 도모한다.

월드컵 마지막 날인 9월 28일에는 ‘함께잡터(한가위맞이 함께 더 큰 잡터)’와 ‘국도교통부장관기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진행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보급한 드론축구뿐만 아니라 전주의 문화, 관광, 예술,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의 자긍심을 담아 전 세계 드론축구인을 하나로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 광역권 인프라 구축 속도

도, 새 정부 국정과제 기반 SOC 핵심과제 추진 동력 확보

고속도로·국가철도망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등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국도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고속도로, 철도망, 국도·국지도 건설 등 도내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인접 광역권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해 전북이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와 연계해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핵심 건의 사업으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이다. 이 노선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던 영호남 간 교통망을 직결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완주~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핵심 인프라로 주목된다.

세만금~목포 서해안선 철도는 서해안권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호남 내륙선을 활용한 전주~김천 철도는 내륙축의 신규 교통망을 형성해 전북과 경북을 잇는 전략적 기반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철도는 대규모 물류 및 여객 수송을 지원하고, 식품·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노후 선로 개량과 선형 개선을 통해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전담도 및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히 지난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김제, 완주가 포함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새롭게 편입된 만큼, 광역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 인프라를 국가계획에 포함해 생활권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전북이 지방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리를 체계화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설득 활동과 정당 공약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과제로 격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은 전북도만을 위한 과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북 광역권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만호 기자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퍼지컬 AI’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전북과 경남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퍼지컬 AI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현 통일부장관 겸임, 사진)은 “한국의 우수한 제조 기술과 경험이 퍼지컬 AI와 결합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제조기술, 퍼지컬AI와 결합하면 세계 경쟁력 확보 가능”

국회서 ‘AI G3 강국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국회·정부, AI 강국 도약 위해 적극 지원 뜻 모아

전북 등 ‘퍼지컬 AI’ 사업 본격... 5년간 총 2조원 투입

포럼에서 백종운 네이버랩스 이사는 퍼지컬 AI를 ‘데이터-클라우드-서비스’ 3단계로 설명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단 한 장의 사진으로 3D 공간을 구현하는 AI 도구 ‘더스터’를 소개하며 VR과 디지털 트윈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제조업체의 사례를 들어,

이상규 구글 클라우드코리아 매니저는 “국내 제조업에 특화된 표준 플랫폼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기술 연계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 재해 시뮬레이션 등에서 작은 오차도 생명과 직결되므로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력 부족과 품질 문제 해결에도 퍼지컬 AI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김영오 교수는 “정확성이 높은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라며 로봇 실증센터를 통한 연구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자율주행, 재해 시뮬레이션 등에서 작은 오차도 생명과 직결되므로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로 나인이즈 대표는 “현장 경험을 데이터화해 AI에 적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실장은 “이번 달 광주·대구·전북·경남 4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AI 사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퍼지컬 AI를 통한 제조업 혁신과 AI 강국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